

다산포럼

금기에 담긴 뜻은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가피하는 말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금기(禁忌-taboo)는 어디서나 발견되는 보편적인 문화 현상이다. 각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금기들에는 대개 물질적·정신적 가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금기에는 또한 인간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공포가 숨겨져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거나 인과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들에 대해 유독 많은 금기 사항이 만들어졌다. 인체에 관한 정보가 미비했던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임신·출산이나 건강·정수와 관련된 금기 사항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 금기에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반영되었다. ‘불장난하면 밤에 자다

가 오줌 심다!’ 아이들의 불장난을 금기로 묶어 둔 것은 집이나 산천을 홀랑 태워 버릴 수도 있는 불안감이 들어 있다. 금기를 위반한 초자연의 복수치고는 좀 약해 보이지만 자다가 요에 오줌을 심다는 것은 어린 행위자들에게는 상당한 공포이다. 실제로 불장난과 오줌의 상관성에 대한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불장난으로 인해 유발된 흥분 상태가 야간 방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흥분과 긴장은 배뇨의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데, 더구나 아이들은 그 조절 능력이 미숙하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근거를 갖춘 금기에도 있지만, 대상에 대한 편견을 조정하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왜곡하는 금기에도 있다.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금기의 형태로 드러난 경우다. 세종 임금 시절 신숙주는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돌아오던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났다. 배에는 일본의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에 임신한 여자가 있었다. 뱃사람들은 일제히 “임신한 여자는 물길에서 꺼립니다. 물

에 던져 재앙을 면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신숙주는 ‘사람을 죽여 삶을 구하는 것은 나로서는 차마 못할 짓’이라고 하고 몸으로 임신부를 가로막으며 뱃사람을 설득했다. 얼마 뒤 태풍이 잠잠해져 배가 순항했는데, ‘연려실기술’에 나오는 이야기다.

금기에는 공동체 구성원의 아픔과 기역을 공유하는 기능도 있다. 경북 지방의 한 종가(宗家)에서는 제사에 시루떡을 쓰는 것이 금기라고 한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듯이 떡은 제사의 간판이고, 그중 시루떡은 충음이 쌓아 올릴 온갖 떡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물러도 안 되고 찰기가 없어도 안 되기에 시루떡은 주부 된 자의 화두였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그날의 운에 따라 부서 지거나 무너지기 일췌인 시루떡.

이 종가의 율대한 며느리 역시 시루떡을 찌면서 거의 공포에 시달리던 참이었다. 그러던 어느 제삿날, 며느리는 딱시루 앞에서 목을 매어 자결한다. 땀을 많이 들인 탓에 시루떡이 너무 물러졌던 것이다. 이 종가의 금기에는 시루떡 할머

니의 애절한 마음을 위로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없었던 사회에서는 그 공포나 경이를 금기어로 담아내었다. 18세기의 ‘증보산림경제’는 당시 사회의 금기들을 소개한다. “겨센 바람을 원망하거나 장맛비가 쏟아진다고 욕하지 말라”든가 “하늘을 향해 속된 말을 하거나 마음속 원망 어린 말을 내뱉지 말라”고 했다. 또 “하와 달을 향해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거나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아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인간과 자연은 한 몸이라고 하는 교감의 천인관(天人觀)이 빛어낸 금기어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공포나 불안 등의 심리적 요인이 반영된 금기는 역사의 전개와 함께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조항이 생겨나기도 한다. ‘해서는 안 될 짓’을 금기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것은 무엇일까. 공동체의 금기를 어겼을 경우 복수는 누가 하는가. 해서는 안 될 짓, 존엄한 복수 등의 용어들이 머리를 어지럽히는 정국이다.

청춘특특

‘정준영 동영상’ 궁금하신가요? 2차 가해는 그만



이현정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최근 가수 정준영이 상대방 동의 없이 동영상상 수차례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박병 출신 승리와 F*아일랜드 출신 최중훈,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지난 3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됐다. 이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로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우려된다. 이번 사태가 터진 직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버닝썬 동영상’,

‘정준영 동영상’ 같은 말들이 올라왔다. 많은 이들이 승리와 정준영을 육하면서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며 찾았다는 얘기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준영 동영상상 구한다’는 내용의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SNS상에는 여성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추측하는 글들이 올라 오고, 심지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정준영 리스트’까지 나왔다.

여성 피해자가 누구라면서 신상을 알아야 보려는 것 자체가 이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애꿎은 피해자를 낳는 것이 된다. 피해자로 거론된 연예인들은 ‘사실 무관’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름이 거론된 자체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여론도 가해자에게 분노의 일침을 놓고 있다. 이 높은 관심에는 “하지만 찌찌한 게 누구냐?”는 어차구니없는 호기심이 포함되어 있다. 가해자의 잘못보다 피해자의 신원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 다.

‘정준영 동영상’에 호기심을 갖고 검색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한다.

사회 각계에서도 박병 전 멤버 승리의 ‘성 접대’와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의 ‘성 관계 몰카’ 의혹과 관련,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준영 씨가 입건된 이후 영상 속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억측이 난무하고, 심지어 문제의 영상을 구할 수 없느냐는 요구까지 오간다고 한다. 이런 피해자 신상 털기와 억측, 이를 조정하는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누설하는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는 설명을 곁들이며 “정준영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 와 처벌만이 아니라, 해당 영상을 재유포한 자들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

사를 촉구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실 몰카 피해는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불법 촬영 및 유포’ 범 죄는 2007년 전제 성폭력 범죄의 3.9%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20.2%로 범죄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그만큼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혹여 자신들의 동영상상이 온라인상에 떠돌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유포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2차 피해를 가한 공범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것은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평생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들이 받은 상처와 억울함을 풀어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의 편에서 서서 피해자와 함께 외쳐주는 것이다.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추측하는 모든 사진·동영상 유포는 2차 가해입니다. 지금 당신이 멈춰야 합니다’ 궁금증의 대상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여야 한다.

기고

역사는 진실되게 기록돼야 한다



김상윤 독도사랑 광주포럼 이사장

역사는 진실되게 기록돼야 한다. 왜곡하거나 과장, 미화하여 기록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이요 중대 범죄다. 특히 국가와 국가간 역사의 사실을 엮었다고 우기거나 없는 사실을 엮었다고 기록하는 것은 상대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알잡아 보는 우월주의가 만연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 역사관과 일본의 역사관은 해가 거듭될수록 차이가 커지고 골이 깊어져만 간다. 일본 교과서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인들은 독도를 찾지 못했다는 근거를 무시하고 알잡아 보는 우월주의가 만연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 역사관과 일본의 역사관은 해가 거듭될수록 차이가 커지고 골이 깊어져만 간다. 일본 교과서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인들은 독도를 찾지 못했다는 근거를 무시하고 알잡아 보는 우월주의가 만연되고 있어서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 왜곡의 출발은 지난 2005년부터다. 문무과학성은 독도의 일본 영토 명기를 처음으로 주장했

다. 그러다 2009년 학습 지도 요령에 독도 영유권 입장을 넣으려다 우리 정부의 반발로 철회했지만 같은 해 최종 반영됐다. 이때 아베 신조 내각이 들어선 이후 최근까지 “교실 우경화”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2014년 중·고교 학습 지도 요령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포함됐다. 이어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추가된 초등학교 교과서 4종이 검정을 통과했다. 이후 2016년에는 해당 표현들이 실린 고교 사회 교과서가 전체의 77%에 달했다.

반만년 역사를 살아오는 동안 독도는 우리의 민족과 함께 살아 숨쉬는 우리의 영토이며 삶의 터전이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5000만 국민들이 자유롭게 가고 올 수 있는 주권이 100% 행사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신라 진흥왕 13년에 이사부에 의해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우산군으로 신라에 복속시킨 역사적인 고증이 우리의 영토라 주장할 수 있는 3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첫째, 독도는 우리가 실용 지배하여 우리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둘째, 거주한 주민의 문화, 풍습, 전통이 우리

와 같다. 셋째, 주민들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완벽하게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한데도 일본 문무과학성은 지난 3월 26일 독도와 관련해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령중이라고 실은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10종에 대한 검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독도 영유권 주장은 검정 대상 교과서 가운데 4~6학년 9종에 들어 있다. 특히 독도 영유권 주장은 5~6학년 교과서에서 강화됐다. 관련 내용은 양적으로 크게 늘었고, 질적으로도 그 강도가 세졌다. 현행 교과서에도 기존 주장을 더 노골한 것이다. 그들은 역사를 왜곡 조작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침략 근성을 세뇌 교육시키고 세습화 하는 교육 정책을 확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또 독도를 분정 지구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보다 우월적인 국제 외교력을 이용하여 독도를 자기네 영토에 복속시키려고 노골적으로 행동한다.

의향 광주에서도 독도에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지난해 말 ‘독도사랑 광주포럼’이라는 비영리 애국 단체가 만들어졌고 지난 2월 22일 북구 우산공원에서는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다케시마의 날 철폐 요구 및 독도 사랑 실천 결의 대회’를 열고 일본의 반역사적 망동을 분쇄하고 독도를 결사 수호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던 바 있다. 독도는 우리 민족의 혼이 깃든 민족의 자존심이다. 차츰의 역사인 일제의 강제 합병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또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일본의 망상을 엄중히 규탄한다. 아울러 일본은 지금까지 자행하고 있는 독도 침탈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다케시마의 날 조례 철폐와 교과서 왜곡 행위를 중단할 것을 5000만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독도는 민족의 얼이 담긴 역사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영토이다. 역사의 진실 을 배워야만 평화와 공생의 길로 가는 창을 열 수 있다. 그 창을 열기 위한 역사 교과서는 진실을 담고 있어야 한다. 진정한 용기는 과거의 일본이 저지른 온갖 만행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다. 그 래야만 한일 관계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社說

BTS 공연으로 한껏 달아오른 세계수영대회

세계 최정상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출연한 ‘2019 광주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성공 기원 슈퍼 콘서트’가 한류 팬들의 열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그제 오후 일곱 시부터 두 시간 남짓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는 3만5000여 명이 몰려 케이 팝(K-Pop)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중 1만여 명은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전 세계 65개 국가에서 온 팬들과 주한 외국인이었다.

공연에는 트와이스, 모모랜드, 아이즈원, 흥진영, 엔 플라잉, 네이처, 더보이스, TXT, 체리블렛 등 10개 팀이 출연했다. 특히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BTS가 신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등 네 곡을 선보이자 관객들은 ‘매장’과 군무로 화답했다.

광주가 고향인 제이홉은 ‘나 전라남도 광주 baby’로 시작하는 ‘마 시티’(Ma City)의 한 대목을 불러 열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흥진영을 비롯한 출연 가수들

은 “오는 7월 광주와 여수에서 열리는 대회에 많은 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면서 관심을 유도했다.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5000여 팬들과 시민들은 대회 조직위원회가 이동식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는 3만5000여 명이 몰려 케이 팝(K-Pop)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중 1만여 명은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전 세계 65개 국가에서 온 팬들과 주한 외국인이었다. 공연에는 트와이스, 모모랜드, 아이즈원, 흥진영, 엔 플라잉, 네이처, 더보이스, TXT, 체리블렛 등 10개 팀이 출연했다. 특히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BTS가 신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등 네 곡을 선보이자 관객들은 ‘매장’과 군무로 화답했다.

이에 따라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규모 공연이 일시에 몰린 이날 행사는 국제 대회 개최 상황을 미리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교통 혼잡과 부족한 숙박 시설 및 식당 등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대회 성공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북한 선수단 참가 이끌어 흥행의 화룡점정

약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9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열기를 끌어올린 일등공신은 옛 국제 열린 슈퍼콘서트 공연, 특히 방탄소년단이다. 이날 국내외 한류 팬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공연이 마무리되면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흥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도 북한 선수단 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 선수단 참가는 한껏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번 수영대회 흥행의 화룡점정(畫龍點睛)이 될 것이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는 현재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개선된 남북 관계를 바탕으로 북한 선수단뿐만 아니라 예술단과 응원단 등의 참가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또한 일부 종목의 단일팀 구성 제안을 비롯해 북한 정상급 예술단의

광주 공연, 남북 청년들로 구성된 공동 응원단의 남북 선수 경기 응원 등 문화·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제안한 상태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남·북·IOC 3자 회담에서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북한 체육상에 게 북측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초청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세계수영연맹(FINA) 역시 북한 선수단 참가 비용과 중계권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의 남북 관계 경색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번 틀어진 북미 및 남북 간의 분위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 북한 선수단 참가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단의 아픔을 딛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평화의 축제로 개최하게 된다면 세계인들의 뇌리에 광주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 주는 것은 물론 고조된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지난 2016년 ‘살아 있을 때 물러나겠다’는 의향을 밝혔던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30일 퇴위하고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5월 1일 즉위한다. 이에 따라 30년간 계속된 ‘헤이세이’(平成·현재 일본의 연호) 시대가 저물고 이제 일본은 ‘레이와’(令和)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올해 86세가 되는 아키히토 일왕은 침략 전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히로히토’(裕仁·1901-1989) 일왕의 아들이다. 그는 그동안 지진 재해 지역 방문 등

2005년 사이판 방문 때는 한국인 전몰자 위령탑을 찾았으며 부인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낸 적도 있지만 일본의 과거 잔악한 전쟁 범죄에 대해 직접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

이에 왕위를 이어받는 나루히토 왕세자가 아베 정권에서의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 대국화 또는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전후 세대’로서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다만 그가 지난 2015년 ‘겸허하게 과거를 돌아보고 전쟁을 체험한 세

레이와(令和) 시대

대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겐 비참한 경험이나 일본이 쌓아온 역사를 올바르게 찾았고 중국·필리핀 등 일본이 저지른 전쟁으로 피해를 본 나라를 방문하는 등 평화와 화해의 행보를 이어 왔다. 일본의 2차 대전 패전일에 열린 희생자 추도식에서는 “과거를 돌이켜 보며 깊이 반성하고 전쟁의 참화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 간 과거사에서도 그는 부친인 히로히토 일왕의 ‘유감’이라는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뜻하는 ‘통석(痛惜)의 염(念)’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대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겐 비참한 경험이나 일본이 쌓아온 역사를 올바르게 찾았고 중국·필리핀 등 일본이 저지른 전쟁으로 피해를 본 나라를 방문하는 등 평화와 화해의 행보를 이어 왔다. 일본의 2차 대전 패전일에 열린 희생자 추도식에서는 “과거를 돌이켜 보며 깊이 반성하고 전쟁의 참화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 간 과거사에서도 그는 부친인 히로히토 일왕의 ‘유감’이라는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뜻하는 ‘통석(痛惜)의 염(念)’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222-49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220-0632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220-0663	220-0663	예향부	220-0692
220-0664	220-0664	사진부	220-0693
220-0642	220-0642	체육부	220-0697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